

정부 가스값 인상

LNG 9.7%, LPG 17.6%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자정을 기해 액화천연가스(LNG)의 도매가격이 15.3% 올라 소비자 가격(서울시기준)이 평균 9.7% 인상되고 액화석유가스(LPG)도 프로판가스를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17.6%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또 4월 1일부터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지역의 지역난방요금도 평균 8.9% 인상된다.

통상산업부는 LNG의 경우 가스공사가 가스회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대폭 올려 주택용은 17.1%, 빌딩 난방용은 18.3%, 산업용은 8.2%, 요식업소 등의 영업용은 7.0%를 각각 인상하되 냉·난방용은 가스난방 보급확대를 위해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스회사의 소매가격은 서울시의 경우 m^3 당 평균 2백45.73원에서 2백69.47원으로 23.47원이 오를 전망이어서 가정 취사용의 경우 현재 월간 3천9백90원($12m^3$ 사용기준)에서 4천3백50원으로 3백6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 천연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25평형 아파트의 경우 월간 난방비가 5만3백80원(1백88 m^3 사용기준)에서 5만6천1백70원으로 5천7백90원 늘어나게 된다.

LPG는 프로판가스 소비자 가격의 경우 kg 당 5백10원에서 6백원으로 17.6%, 부탄 충전소가격은 3백30원에서 4백20원으로 27.3%가 각각 인상돼 프로판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이 월 5천1백원에서 6천원으로 9백원 늘어나게 됐다.

통산부는 LNG 및 LPG의 수입가격 인상과 환율상승으로 가스공사와 LPG수입업체의 누적적자가 급증,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이번 가격조정으로 LNG와 LPG 27만5천톤의 소비절약 효과와 6천7백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LNG, LPG 소비자가격 조정내용

구분		종전	인상	인상률(%)
LNG(원/ m^3)	평균 산업용	245.73	269.47	9.7
	평균	196.70	206.13	4.8
	일영	309.06	318.49	3.1
	반업	242.39	270.36	11.5
	용냉	165.97	165.97	-
LPG(원/kg)	주취	301.90	329.87	9.3
	택취	243.64	271.61	11.5
	용사			
LPG(원/kg)	프로판	510	600	17.6
	부탄	330	420	27.3

주 : 부가세 제외한 소비자가격 기준, LNG는 서울시 기준 추정치